

내적작동모델과 하나님 애착의 관련성 및 기독교 상담적 함의 :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시점에서

신 성 희* 전 혜 연** 장 동 진***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통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압살롬을 이해해보았으며, 이러한 모습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상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은 다양한 대인관계 장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애착 이론에서 내적작동모델은 타인과 관계를 맺은 자기에 대한 표상체계를 가리킨다. 성경 본문에서 나타난 압살롬의 아버지 경험을 살펴보면 다윗은 ‘고통을 외면하고, 반응하지 않는 아버지’였으며, ‘훈육하지 않는 아버지’이자,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였다. 아버지와의 애착이 하나님과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Kirkpatrick(2005)의 하나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압살롬은 하나님 애착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는 압살롬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교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과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독교 상담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기독교 상담의 함의와 의의가 있다.

주제어: 다윗과 압살롬, 부모-자녀 관계, 하나님 애착, 내적작동모델, 기독교 상담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전공 박사과정, 제1저자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전공 박사과정, 참여저자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I. 여는 글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다윗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 다윗은 모범적인 통치자였고, 군사적/정치적인 귀재, 재능있는 시인이자 음악가였다 (Pippert, 2003).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행 13:22).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안정을 얻은 것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 46:1)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과 신실하였고 요나단의 아들을 잊지 않고 평생에 그를 선대 하였으며,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을 책임지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한계와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밧세바를 간음하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으며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그들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훈육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여러 문헌과 연구들에서 다윗이 자녀들의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훈계와 처벌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윤희, 2004; 김태두, 2020; Peterson, 2020; 전성수, 2008). 이에 전성수(2008)는 다윗이 강간을 당한 이후 아버지인 다윗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나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다윗과 애착이 형성되어있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압살롬 역시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고 다윗에게 언급하며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모습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역시 긴밀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압살롬이 다윗 사건을 겪을 때에도, 암논을 살해하기 전후에도, 아버지 다윗에게서 도망할 때도, 아버지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부르기도 얼굴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물론, 자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이유가 부모의 영향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한 인간이 부모와 맺은 애착이 다른 관계에서도 반복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 이론(Marrone, 2005) Kirkpatrick과 Shaver가 제시한 부모에 대한 아이의 초기 애착이 미래의 종교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따른다면(Kirkpatrick & Shaver, 1990; 하재성, 2011에서 재인용)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기독교인 부모 자녀의 애착 관계가 자녀의 신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됨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경은 자녀의 신앙교육과 관련해서 부모의 역할을 중요하게 설명한다. 문진형(2023)은 교회의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부모 세대의 신

앙이 자녀 세대에 제대로 전수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녀의 신앙발달에 부모와의 애착은 중요한 요소이다.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이 형성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아 자녀들의 신앙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 곽윤경, 김미경(2017)은 서울 소재 기독교 대학 재학생 359명 대상으로 부모애착 표상에 따른 신앙성숙에 따른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부모애착 표상과 가족 건강성이 신앙성숙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부모애착 표상이 신앙성숙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바울(2021)은 건강한 신앙형성과 신앙발달의 출발점이자 신앙교육의 첫 장소가 가정이며 특별히 부모와의 안정 애착 경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유아기에 부모와의 관계 및 환경이 신앙 형성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영유아기의 정서와 애착 관계 경험 탐색은 신앙 정체성과 영적인 문제를 다룰 때 필수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미화(2011)는 기독교인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맺고 있는 기독교 청년들은 신앙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사회/문화적 환경과 신앙적 가치관의 갈등을 겪고 있음을 밝히며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고, 왕으로서 돌봐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으며, 수많은 전쟁과 다양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분주한 모습이 이 시대의 사역자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다. 사역자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역자 자녀들은 부모와 갈등을 겪기도 하며 정서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신앙의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강문규, 2021; 강연정, 2005; 최경숙, 한재희, 2015; 홍인종, 2001). 기독교인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부모 자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 Miller와 Delaney(2015)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수용적일 경우 그 부모의 종교적 신념과 실천하는 모습들이 자녀에게 더 잘 전달된다고 하였다. 이재현(2021)에 의하면 Rizzuto는 성장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들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Barth는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하는 통로가 되는 것만은 여전한 사실이며 부모는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하는 하나님의 표상으로 기능한다”라고 말하였다(이재현, 2021). 사미자(2001)는 Fowler의 신앙의 의미를 정리하였는데, 신앙은 관계적인 현상으로서 언제나 그 상대가 있고, 관계 속에서 발달해간다고 하였다. 김영애(2012)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양육자와 유아의 관계 질이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할 때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Rizzuto(2000)는 자녀가 부모 표상을 이용하여 하나님 표상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부모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관계를 맺는 존재가 부모이며, 이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통해서 애착이 형성되고, 이는 내적작동모델의 기반이 된다. 내적작동모델은 애착 대상에 자기가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지 혹은 수용될 수 없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 요소이다(Bowlby, 1973). 본 연구에서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애착이론의 핵심은 Bowlby가 개발하고 Peterfreund가 임상 장면에서 적용한 내적작동모델이다.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사람들이 갖고있는 자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지적 지도, 표상, 도식 혹은 각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타인과 관계를 맺은 자기에 대한 선택적 표상으로서 아동이 지지와 보호를 요청했을 때 애착 대상이 대체로 잘 반응을 해줬는지와 애착 대상으로부터 지지적인 대우를 받았는지에 따라 내부 작동모델의 질이 결정된다(Marrone, 2005). Wallin(2010)은 Bowlby가 유아와 양육자의 반복적으로 경험한 상호작용이, 내적작동모델로서 내면에 저장되어 인간 세계에 대한 지식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이 인간 관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인 자녀들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할 때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부모 세대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르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압살롬을 일부 기독교인 자녀들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상정하였다. 애착 이론의 문헌 연구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과 자녀 압살롬의 관계가 압살롬과 하나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압살롬의 시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녀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애착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애착 이론을 통해서 본 압살롬의 관계 경험

1) 애착 이론 : 내적작동모델을 중심으로

애착이란, 한 사람이 양육자 혹은 특별한 사람과 맺는 친밀하고 강력한 정서적인 유대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곽금주, 2016). 영아기에 양육자와 애착이 형성되는 데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은 이후에 성인의 삶에도 다양한 대인관계 장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영애(2012)는 애착 형성이 불안정한 아이는 성장 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분리불안과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Ainsworth를 포함한 애착 연구자들은 낯선 상황에서 영유아가 양육자와 분리 상황에서, 다시 만나는 재결합 상황에서, 낯선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을 때 영유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애착 유형을 안정 애착, 불안정 회피 애착, 불안정 저항 애착과 혼란 애착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곽금주, 김연수, 2014). Bowlby(2014)는 부모가 아이의 성격이나 상황에 맞게 적합한 양육 태도를 보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안전기지가 되어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양육자를 안전기지 삼아 주변에 사물들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양육자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면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될 수 있다. Holmes(2005)는 한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외부세계와 연결되기 위해 사용하는 공통된 표상을 형성하는데 이를 '내적작동모델'이라고 하였다. 내적작동모델이라는 개념은 자기(self)와 대상을 담고 있는 표상과 거의 유사한 의미이지만 애착 이론가들은 '대상'이라는 용어보다는 '작동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Marrone, 2005). 애착이론에서 내적작동모델은 타인과 관계를 맺은 자기에 대한 표상체계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내적작동모델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동이 지지와 보호를 요청했을 때 애착 대상이 대체로 잘 반응을 해줬는지와 애착 대상으로부터 지지적인 대우를 받았는지의 여부이다(Marrone, 2005). 내적작동모델은 자녀가 자신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부모의 반응 결과가 마음에 저장되는 형태이며 생후 몇 개월 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성장하면서 계속 만들어지고 수정되는 과정을 겪지만, 최초의 관계 모델이 아동이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양육자와의 초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Marrone, 2005). 추원심(2005)은 초기 양육자와의 정서적 경험이 결국 애착 유형을 형성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지적 형태로 내적작동모델이 표상화 된다고 하였다. 즉 내적작동모델은 아동이 부모의 도움, 지지와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자신의 부모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표상화되어 저장됨으로 생애 전반의 발달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2) 하나님 애착 이론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Clair, 1998). 즉, 유아의 애착행동에 대해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타인이 반응적이고 접근 가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표상이 생긴다(함수정, 2002).

Freud는 신은 인간 정신의 창조물이며 어린아이가 생각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아이의 개념 속에 있는 부모의 재생(revival)과 회복(restoration)은 후에 정신분석학 이론의 근본 개념인 대상 표상의 개념이 되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가까이 어머니와 애착 대상을 형성하지만, Freud는 아이가 강력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닌 신의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Rizzuto, 2000; 하재성, 2011). 애착 이론은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데, 애착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린 시절 경험한 어머니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Kirkpatrick & Shaver, 1990). Rizzuto(2000)는 개인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사람인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의 하나님 애착 역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작동모델의 지속적인 작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그는 아동기 동안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전 생애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수정되기도 하고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는 과정을 결친다고 하였다. Rizzuto의 『살아있는 신의 탄생』에서 많은 통찰을 제공한다. Meissner는 종교 경험은 매우 복잡하여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그 경험은 인간 발달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lair, 1998). Allport와 Ross(1967)는 애착표상을 통해서 종교적인 동기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동기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의 기저를 이루는 표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김미경, 2017에서 재인용). 또한, 대상관계이론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맺었던 중요한 관계 경험이 마음속으로 내재화된다고 하였고, 부모와의 관계가 아이의 마음에 내재화되고, 이것이 아이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최영민, 2019). 따라서 중요한 대상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같은 객관적인 사건보다는 아이가 외적 대상을 어떻게 경험하였고, 이해하였는지가 중요하다. 개인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이 하나님과의 애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Kirkpatrick(2005), Rizzuto(2000), Allport와 Ross(1967; 김미경, 2017에서 재인

용)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고 손을 만질 수 있고 음성으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간 부모와의 관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로 확장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김난예(2002)는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이미지는 성경에서 표현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라고 하였다. 즉, 인간 내면에 형성된 하나님 이미지가 어떠한가에 따라 하나님과 애착에 영향을 받는다.

Kirkpatrick(2005)은 개인이 자신의 정서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애착 특성을 ‘하나님 애착(attachment to God)’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기독교인의 신앙 행동과 애착 행동 연구의 핵심 인물로서 ‘근접 지속성’, ‘분리불안’, ‘안전한 안식처’, 그리고 ‘안전기지’의 개념이 기독교인의 신앙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근접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 애착 행동으로는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중요한 대상과의 ‘분리불안’에 대한 반응으로는 기독교인이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과 멀리 계시고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안전한 안식처’ 개념은 개인적 고통이나, 부정적인 삶의 사건들 혹은 삶의 역경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안식처로 찾게 된다고 하였다. ‘안전기지’로서의 하나님은 안정감과 자신감을 제공해주는데 성경에서 여호와는 ‘반석’, ‘요새’, ‘구원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과 ‘산성’으로 표현되어 있다.

Kirkpatrick은 인간의 양육자와의 애착과 하나님 애착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한다. 그는 하나님 애착이 부모와의 애착과 동일하다고 보는 일치가설과 하나님 애착은 부모와의 애착과 차이가 있다고 보는 보상가설을 밝혔다. 일치가설(Correspondence hypothesis)은 기독교인의 하나님 애착이 초기 양육 관계에 연결되어 있고, 성인 애착과 하나님 애착이 일치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문경(2014)에 따르면 일치가설은 생의 초기에 경험한 애착관계를 기반으로 종교적 신념이 만들어지며, 아동이 부모와 초기 애착 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이라면 상대방을 자신에게 반응해주고 사랑해주며, 돌보아주는 대상으로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된 애착을 한 성인은 애착 대상과의 관계와 동일하게 점차적인 종교적인 변화와 수용을 보이고 있으며, 안정된 사회화와 영적인 특징을 갖는다(최해림, 2005). 다른 연구에서 부모가 신앙이 있는 경우 신앙이 없는 집단에 비해서 하나님 이미지가 긍정적이었다고 밝히며, 기독교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하나

님의 이미지는 청소년 개인의 신앙 경험 및 성숙과 관련이 있었지만 이러한 측면들은 부모의 신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이영희, 박준하, 2011). Kirkpatrick과 Shaver는 아동기 주양육자인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종교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안정적인 아동기를 보낸 사람의 경우 비교적 점진적으로 부모의 종교적인 믿음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Kirkpatrick, 1992; Kirkpatrick & Shaver, 1990: 이문경, 2014에서 재인용). Clair(1998)는 부모 이미지가 하나님 이미지와 섞여 있으면 부모와 부모의 세계관과 종교적 가치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고 하였다.

Kirkpatrick은 또한 불안정애착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애착이론을 근거로 설명하면서 보상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는 보상가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한 가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자녀들은 애착 요구를 강력하게 반응하는 애착 대체 인물을 찾고 추구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부모의 죽음이나 질병 혹은 이혼과 같은 중요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동이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애착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확립되면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NICHHD, 1997; 이향숙, 2013에서 재인용). 즉, 주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획득된 안정감을 주는 보상애착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안정적인 애착 관계 맺을 수 있다. Kirkpatrick의 보상가설에 따르면, 주양육자인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인간 부모의 사랑의 결핍에 대해서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정고운, 2011).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 자매들, 리더들, 코치나 특별한 교사, 멘토 혹은 종교지도자들과 같이 부모가 아닌 다른 대상과 안정 애착을 맺을 수 있다. 심지어 종교 집단이나 공동체가 애착 대상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모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다(Kirkpatrick, 1992). Kirkpatrick과 Shaver는 모성 애착 관계가 회피 유형인 개인이 안정 애착 유형이나 불안/양가감정 애착 유형의 개인보다 종교 개종의 비율이 4배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불안정 애착 유형의 성인은 하나님을 대체 애착 대상으로 여겨 하나님께 의존하고 사랑과 돌봄을 받고자 하여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동기는 있지만 이들이 부정적인 타인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쉽다고 하였다(Kirkpatrick, 1998).

Granqvist는 부모-자녀 애착이 안정 애착인 경우 외적인 면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지가 형성되고, 부모-자녀 애착이 불안정 애착인 경우 내면적인 면에서 정서조절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의 애착 유형이 변화된다고 하였다(이향숙, 전요섭, 2010). Kirkpatrick가 일치가설과 보상가설을 주장한 것과 동일하게, Rizzuto(2000)는 하나님 이미지에 근간이 되는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직접적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제안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해주며, 이는 더 나아가 자기감을 균형있게 유지해주고 심리적인 편안함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부모님과 형성된 애착 유형에 따라 하나님 애착 유형이 형성되는 방향에 대해서 직선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더라도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다른 대상과 새로운 관계 경험이 하나님 애착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실제 영유아기 부모-자녀 애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따른 매우 주관적인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개인 내적인 평가가 성인 애착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연구들에 따르면 한 개인이 부모와 어떤 관계 경험을 했는지는 하나님 이미지와 하나님과의 애착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애착 이론으로 본 압살롬

성경에서 어린 시절의 압살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 영유아기에 압살롬이 어머니 마아가와 아버지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애착 이론은 애착 대상과의 생애 최초의 과정을 통해서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내적작동모델은 애착 대상과의 초기의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만들어지고 수정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압살롬의 영유아기의 초기 경험을 알 수는 없지만, 압살롬의 생애 경험한 아버지 다윗과의 경험 역시 내적작동모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성인이 되고 난 이후 압살롬이 다윗과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면 압살롬이 어떤 내적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탐색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통과 아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때 안정감을 회복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안전기지(secure base)를 찾게 된다. Wallin(2010)은 Bowlby가 위협에 직면하는 순간에서 인간과 동물이 위협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특징을 밝히고 있는데, 동물들은 위협을 피할만한 장소를 찾지만, 사람은 위험한 상황과 놀란 순간에 '안전한 피난처'이자 안전기지인 애착 대상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다말은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과 고통을 경험하였다. 다말은 위협에 직면한 순간 자신의 오라비인 압살롬에 이 사실을 말한다(삼하 13:21). 다말에게 압살롬은 위험한 상황과 놀란 순간에 찾아갔던 안전기지이자 애착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압살롬은 다말에게 잠잠히 하라고 하며 몹시 불안하고 원통하며 슬퍼하는 다말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말을 위로하고 진정시켜준다(삼하 13:20). 동시에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서도 아버지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찾아가지 않는다.

자녀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청한다. 자녀가 신체적인, 심리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이를 진정시켜 주고 위로해주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하는 당연한 반응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버지 다윗은 심히 분노하는 감정 반응에서 더 나아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말과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기지(secure base)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Wallin(2010)은 애착 대상이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것으로서 애착 대상에게 수용될 수 있는지가 내적작동모델의 핵심요소라고 하였다. 내적작동모델은 자신의 애착 대상이 다가가도 되는 사람인지, 애착 대상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예측하게 한다(Wallin, 2010). 압살롬과 다말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을 찾아가지 않은 모습으로 보아 애착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자신들이 경험한 역올한 상황에 대해 수용 받고 어려움을 해결해주시리라 예측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Fonagy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불안을 잘 담아낼 경우 안정 애착을 형성한다. 자녀는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 압도적인 정서를 조절하도록 도와줄 애착 대상에 의존한다. Bion은 애착 대상은 자녀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담아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더 나아가 담아내기(containment)는 애착 대상이 아이의 고통의 원인을 알고, 고통에 따른 감정적인 충격을 이해하고,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적절한 대처를 해주며 아이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모든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Bion, 1962; Wallin, 2010에서 재인용).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아버지로서 다윗은 압살롬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담아내지 않았다. 애착 이론에서는 내적작동모델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애착 대상인 부모가

자녀의 요청과 도움을 청할 때 어떤 지지와 보호를 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다윗은 압살롬과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안정적 애착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양육자인 부모와 관계에서 고통을 알아차리고 줄여주는 경험이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안정 애착은 부모가 민감성 있게 자녀의 필요를 알아차리지 못하며 안전한 안전기지를 경험할 수 없다. 압살롬을 살펴봤을 때 살인에 이를 정도의 압도적인 분노의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진정시켜 주는 경험이 없다. 또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찾아가 안전한 안전기지로써 아버지인 다윗을 찾지 않은 점을 통해 압살롬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불안정 애착임을 추측해볼 수 있겠다.

4) 하나님 애착 이론으로 본 압살롬

가족 안에서의 구체적인 경험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 애착 이론은 양육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어머니가 자녀의 주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아버지도 자녀의 주양육자가 되기도 하고, 꼭 주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아버지도 자녀와 애착을 형성한다. 압살롬의 경우를 살펴보면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는 그술 왕 달매의 딸이다. 즉, 어머니 마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다. 마아가가 압살롬과 어떻게 애착을 형성하였고, 어떻게 양육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그러나, 연구자는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는 이방 여인으로 압살롬과 마아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게는 좀 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영해줄 수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내적작동모델은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애착에 따라 형성된다.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한 인간의 생애 전반의 대인관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압살롬의 내적작동모델은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에서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다윗과의 경험에서 형성된 압살롬의 내적작동모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압살롬의 하나님 이미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성경에서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삼하 15:7-8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압살롬이 하나님을 언급한 내용은 이 본문이 유일하다. 그러나, 압살롬이 말한 내용이 아버지 다윗이 허락해줄 만한 종교적 구실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한 핑계 혹은 속임수였는지(이병규, 1978; Faculty of Moody Theological Seminary, 2017), 아니면 실제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이후에 아람 그술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서원하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성경에는 압살롬이 자신의 억울한 심정이나 자신 안의 분노를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압살롬은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아버지 다윗에게도 토로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신과 누이의 상황에 방관하고 적극적 보호와 공의를 베풀지 않았던 아버지와의 내적작동모델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압살롬의 아버지 경험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용서가 필요할 때 용납하지 않았으며, 가르침과 수용이 필요할 때 무관심했다. 이는 압살롬이 도망자 신세로 자신의 몸을 피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회개는커녕,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고, 자신의 필요를 공급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윗과의 경험에서 형성된 압살롬의 내적작동모델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일치 가설로 압살롬의 하나님 애착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2. 성경 속에 나타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아들이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다. 부자 관계인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어떤 관계 경험이 있었을까? 압살롬은 과연 다윗을 어떠한 아버지로 경험했을까? 이러한 관계는 성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다윗의 반응을 통해 압살롬이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고통을 외면하고, 반응하지 않고, 훈육하지 않으며,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로 경험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통을 외면하고 반응하지 않는 아버지

왕정 시대의 일부다처제 환경 속에서 왕이자 아버지인 다윗이 자녀 문제의 개입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삶을 잘 지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출 18:20),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이와 같이 성경은 자녀들의 삶에 부모로서 가르칠 것을 명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자녀 양육에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태두(2020)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모로서 자녀들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고되는 다윗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그들의 의중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보고가 드러나지 않는다. 부모의 민감한 반응이 자녀가 자라서 살아가는 동안 사용할, 사랑하고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자기 통합과 자기 가치감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Marrone, 2005). 든감한 양육자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도움을 청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방치된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의식적, 의식적 사랑이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런 자녀들은 위기 상황에서 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Marrone, 2005).

압살롬은 다윗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자 다말과는 오누이 관계이다. 성경에서 다말은 ‘다윗의 딸’이 아니라 ‘압살롬의 누이’라고 소개되어 있다(삼하 13:4, 32). 김윤희(2009)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삼하 13:1)고 소개하는 성경의 본문에 주목하고 있다. 성경의 저자는 다말을 소개하며 다윗의 딸로 소개하지 않고 압살롬의 누이라 소개하고 있으므로 압살롬과 다말의 관계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다말은 그의 이복 오라비 암논에 의해 강간을 당한 후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삼하 13:20)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다윗은 암논의 행위를 듣고 “심히 노했다”(삼하 13:21)라고 되어 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다말을 위해 아버지로서 어떠한 조치나 징계와 위로와 같은 대안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내용은 성경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삼하 13:20)라고 언급된 것으로 압살롬이 다말의 심정을 헤아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삼하 13:22)라는 것을 보아 압살롬은 다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분노의 감정을 품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Garland(2008)는 다말이 고통을 당하는 동안 다윗이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음에 대해 언급하며, 아프다고 하는 아들 암논을 직접 찾아갔지만, 강간을 당한 후 망연자

실한 다말을 찾아가 위로한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과 함께 지내며 누구보다 다말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함께 아파했을 것이다. 동시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다말을 돌보지 않고 외면하는 아버지를 압살롬 또한 동일하게 경험했을 것이다. 결국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과 다말 두 자녀의 고통을 보듬어 주지 않았음에 결국은 훗날 압살롬이 분개하여 암논을 살인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2) 훈육하지 않는 아버지

성경의 저자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행위를 듣고 다윗은 “심히 노하니라”(삼하 13:21)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다윗이 암논에게 어떤 훈계나 가르침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훈계하고 가르칠 것에 대해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잠 13:24).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잠 23:13-14). 근친상간의 죄는 율법에서도 엄히 금하고 있는 것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이르는 중대한 죄였음에도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암논의 잘못을 훈계하지 않았으며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암논의 성적인 죄는 다윗의 기념비적인 죄인 밋세바와의 간통과 유사하다(Peterson, 2020). 김윤희(2009)는 다윗이 자신의 자녀를 훈계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 다윗이 밋세바와 범한 죄로 인한 자격지심이라고 표현하였다. 성적인 죄로 인해 다윗은 권위를 상실했고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압살롬을 오히려 더욱 분개시킨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윗은 자신과 동일한 죄에 걸려 넘어진 아들에게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엄격하게 훈육할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될 때 노할 뿐 아버지로서 옳고 그름을 꾸짖지 못하고 회피하였다.

다윗은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이 돌아와 그술에서 지내는 것은 허락하였으나, 3여 년간을 압살롬을 만나지 않는다. 삼하 14장 18절-24절은 요압이 압살롬의 귀환을 위해 설득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성서원 출판부, 1998). 이처럼 다윗 본인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유사한 죄를 지었을 때 적극적으로 훈육하지 않고 회피하는 선택을 했다. 이로 인해 다윗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결국 다윗은 자

녀에게 배반을 당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극을 겪게 된다.

3)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였더라(삼하 18:33).” 이는 압살롬이 사망한 이후 다윗의 애통해 하는 고백이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절절한 자녀 사랑이 압살롬에게 잘 표현되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성경에 기록된 압살롬이 사망하기 전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압살롬은 암논 살해의 죄 된 선택 이후에 그술에서 3년을 지내면서 아버지와 단절된 시간을 보낸다.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마음은 간절했음(삼하 13:39)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요압의 도움으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지만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해 다시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다윗과 압살롬이 재회하여 압살롬을 부르자,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에게 절하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다윗은 오랜 시간 자신의 결로 돌아오지 못한 압살롬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엄한 질책이든, 압살롬을 만나지 못해 내내 그리워했던 가슴 절절한 아픈 마음이든, 아버지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었겠으나,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다물고 만다.

압살롬이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는 경험을 했더라면 다윗의 노년과 압살롬의 마지막은 조금은 다르게 성경에 기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질문하였고, 하나님 여호와는 다윗에게 응답하셔서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경험을 하였다(삼상 30:6-8). 또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다(삼하 11:13, 시 51:1-10).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용서받는 경험을 깊이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상처 입고, 죄를 범한 자녀 압살롬과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 즉, 자녀에게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비취주지 못하였다.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성서원 편집부, 1998).

3. 기독교 상담적 함의

본 연구에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통해서 기독교인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자녀가 하나님과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의 애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다양한 관계 경험을 할 것이다. 그러나, 양육자인 부모와의 맺었던 초기 대인관계는 내적작동모델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한 개인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유형이 하나님 애착으로 확장되는 것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함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1)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부모-자녀 관계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내면에 대인관계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내적작동모델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평생에 걸쳐 중요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시 동일하다. 김은영(2012)은 육신의 아버지-자녀와의 관계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하나님 자녀의 관계 및 신앙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경험으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하나님과 형성될 애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 경험에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에 의해서 내면에 새겨진 부모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투영될 수 있으며 부모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미지를 동일시하기도 하며, 부모와의 경험을 반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김은영, 2012).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침으로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여 긍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할 때 결국은 신앙교육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신앙의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기독교 상담은 신앙교육에서 더 나아가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자녀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 주목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신 31:13),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가르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부모의 신앙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경험이 어떻게 하나님

과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골 3:21)라며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곧 자녀의 마음의 분노한 상태로 둘 때 자녀들이 낙심하게 됨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자녀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줄어든다고 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을 수 있다.

압살롬이 경험한 아버지 다윗은 자녀들의 감정이 상하고 노엽게 된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훈육하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압살롬이 자신 형의 잘못을 스스로 처벌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압살롬의 분노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자신의 낙심을 암논을 살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다. Wallin(2010)는 부모가 정서적, 신체적인 돌봄의 언어를 통해 아이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아이의 고통의 원인과, 그로 인한 감정적인 충격을 이해하고, 고통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고 그것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압살롬의 경험을 통해 부모와의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압살롬과 그 누이 다말은 도움이 필요하고 상처받은 마음의 진정과 보호가 필요할 때 적극적인 돌봄도, 인격적인 보호 역시 경험하지 못하였다. 부모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안전기지의 역할을 자녀에게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가늠할 수 있다.

우리는 신앙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와 어떤 관계 형성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신앙생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건강한 애착 형성을 할 수 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라며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서의 중요한 지침을 보여주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만 강조하지 않는다. 성경은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자녀들의 정서와 그에 반응하는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 건강한 내면이 형성되고 이는 곧 건강한 심리발달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많은 연구가 부모와의 경험이 하나님과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 경험이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부모-자녀와의 관계에서 항상 긍정적인 감정만을 경험할 수 없다. 때때로 갈등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수용하기 위한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관계 내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하

는 것 또한 자녀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성 발달에 필요하다. 가요한(2021)은 기독교인들이 영성의 발달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통한 긍정적 경험의 형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부정적인 정서인 불신, 수치심과 같은 파괴적인 정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압살롬의 영성이 발달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아버지와 관계에서 사랑과 신뢰 의지할 수 있는 긍정적 경험의 결핍뿐 아니라 압살롬이 갖게 된 분노와 같은 파괴적인 정서가 다뤄지지 않은 점이 그의 삶에 영적인 변화가 어려웠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심리발달과 영성 발달의 연관성에 대해서 심리발달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 영성 발달 역시 잘 형성된다고 하였다(가요한, 2021). 심리발달의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부모이다. 부모는 자녀가 전인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진정시켜 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 되어 줄 수 있다.

2)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교회의 역할

최종두(2017)은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말하였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그의 자녀인 압살롬에게서는 신앙인으로 사는 삶이 없었다는 점은 현재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다. 종교적 형식의 신앙 전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통한 신앙 전수를 하는 것에 대한 교회의 부르심은 간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다윗의 자녀 압살롬은 신앙의 형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압살롬은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라고 서원하였다고 전한다(삼하 15:8). 압살롬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윗에게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배웠을 것이다. 이에 다윗이 의심 없이 압살롬을 “평안히 가라”고 보내준다. 압살롬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다(삼하 15:4). 압살롬은 종교적인 형식만을 학습하였다.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을 현재의 교회에 기독교인 자녀들에게 대입해보면, 이들이 종교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는 유념해야겠다.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율법과 규율의 모습이나 행위만을 전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전수는 아닐 것이다. 교회는 신앙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

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은 어떤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엡 3:18-19)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없이 기독교의 형식만을 좇는 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교회 사역자와 기독교인 부모는 함께 협력하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들과의 생생한 관계를 통하여 비취주는 중요한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깊이 만날 때, 좋은 마음이 생기고, 그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성령의 열매인 인내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눅 8:15).

3)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기독교 상담자

기독교 상담자는 일반 심리학 이론의 인간 이해와 달리 더 초월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내담자를 만나게 된다. 기독교 상담은 인간의 변화와 원리를 신학적인 기반에 근거하고 있으며 결국은 기독교 상담자가 기반을 두고 있는 신학에 따라 기독교 상담이 좌우된다고 하였다(임경수, 2009; 최은영, 2015). 기독교 상담자는 심리학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신학적인 시각으로서 인간 간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만홍과 황지연(2007)은 기독교 상담의 목표가 내담자의 영적 성숙을 유도하는 것이며 영적으로 성숙하였다는 것은 내담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개선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독교 상담자는 부모와의 불완전한 경험을 통해 갖게 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을 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된다. Miller와 Delaney(2015)에 따르면 Clinebell은 상담 안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표상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Meissner는 하나님 형상의 왜곡을 해체하도록 돕는 것이 심리치료사의 일이라고 하였으며, Jordan은 이러한 영적 발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검토하는 것뿐 아니라 왜곡된 표상을 자비로운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체하여 초월시키는 과정이 기독교 상담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학자들을 통해 상담 안에서 하나님의 표상을 다루는 것이 개인의 영적 발달에 이르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 상담은 그 부모님과 왜곡된 애착 관계로 형성된 하나님 표상과 이미지를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부모와의 초기 애착이 불안정하더라도 불안정 애착을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 경험을 통해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을 수 있다. Wallin(2010)은 주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의 내적작동모델이 있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안정된 내적작동모델을 갖게 된 경우를 '획득된 안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기독교 상담자는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반복되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획득된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상담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담에서 다루며,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획득된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모 경험으로 형성된 왜곡된 내적작동모델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형성된 내담자의 왜곡된 내적작동모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왜곡된 하나님의 표상을 수정해갈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내담자가 건강한 영적 발달 및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살펴보고, 아버지와의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애착 이론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독교인 부모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자녀의 신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됨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독교인 부모와 기독교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고, 안정된 하나님과의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독교 상담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압살롬이 경험한 아버지 다윗은 고통을 외면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훈육하지 않고,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압살롬은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노와 서운함, 거절감, 외로움 등의 복잡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압살롬의 내적작동모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압살롬의 하나님은 고통을 토로할 수 없으며, 고난에서 보호하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가능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기 위한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와 사역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영적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겠다.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이 크다. 결국은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가 하나님의 표상을 완전히 대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인 행위를 전수하는 것을 뛰어넘어 부모-자녀의 관계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앙 전수의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동일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솔로몬은 압살롬과는 다른 아버지 경험하였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저해하려던 아도니야의 의도를 듣게 된 다윗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 솔로몬을 보호하였다. 또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물질과 돕는 자를 준비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축복하고 신앙을 전수하였으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솔로몬을 도울 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함으로 솔로몬을 지지해주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대상 22:12-18). 이렇듯 다윗은 두 자녀와 다른 관계를 맺었고, 이는 결국 부모-자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죄인인 한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자녀와의 관계로만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Wesley는 신앙의 발달은 인간의 종합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였다(가요한, 2021). 따라서, 일반 심리학의 애착 이론이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다윗의 시대는 왕정 시대이며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현대에서 경험하는 부모의 역할과 달랐다. 다윗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영토와 힘을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고, 이후 아히노암과의 결혼, 더 나아가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와의 결혼 모두 정략적인 투자로서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이종진, 2004). 이는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는 현대의 남성들과는 다른 선택이었다. 압살롬의 반란 역시 현대의 아버지에 대한 갈등에서 비롯된 반항으로만은 볼 수 없는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녀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현대에서는 적은 자녀 수와 핵가족의 환경에서 자녀와 밀접하여 접촉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있기에 현대적인 시각으로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차이와 신분의 차이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다.

셋째, 부모-자녀의 관계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인간이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죄인이라는 것이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와 서운한 마음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과 암논의 죄에 대해서도 스스로 심판하는 교만을 선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넷째, 한계성이 있는 부모가 완전한 하나님의 표상을 대표할 수는 없다. 이재현(2021)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표상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완전한 하나님의 표상은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랑에 미칠 수 없는 불완전한 관계라는 점이 부모가 하나님의 표상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지만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다음의 의의를 지닌다.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나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부모 각자의 신앙 경험의 한계와 인격의 불완전성 속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는 쉽지 않고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을 통해서 전인격인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하나님의 대행자인 부모는 일방향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나 부담 및 지침을 의미하는 행위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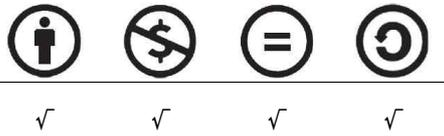
본 연구를 통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애착 이론에 기초한 연구들은 대부분 초기 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아버지와 자녀의 애착 관계를 살펴보았다. 현대 한국 사회는 아버지의 양육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 맞는 아버지와 자녀 애착 관계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윗과 압살롬에 애착 관계가 압살롬의 하나님 애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성경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실제로 아버지와 자녀의 애착 관계가 하나님과의 애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양적 및 질적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찾은 결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녀가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을 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나 건강한 사회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부모와의

안정 애착을 통해 자녀의 신앙형성과 신앙발달을 돕는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연구 및 개발 되어진다면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논문 투고일: 2023년 05월 16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06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07월 08일



【참고문헌】

- 가요한 (2021). **심리영성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강문규 (2021). 현대 한국교회 청소년의 기독교 신앙 자아정체성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 책임. **신학과 실천**, 7, 665-701. <http://doi.org/10.14387/jkspth.2021.74.665>
- 강연정 (2005). 목회자 자녀의 건강한 자아형성을 위한 상담의 과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9, 113-144.
- 고원석 (2013). 가정 평화: 아버지의 사랑표현이 자녀의 신앙을 살린다. **새가정**, 60(654), 84-88.
- 곽금주 (2016). **발달심리학: 아동기를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곽금주, 김연수 (2014). **영아발달**. 서울: 학지사.
- 곽윤경, 김미경 (2017). 부모애착표상과 가족 건강성이 기독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신앙과 학문**, 22(2), 7-30. <http://doi.org/10.30806/fs.22.2.201706.7>
- 김난예 (2002). 기독교와 가톨릭 학생들의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30, 275-305.
- 김윤희 (2004) **구약의 조연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김은영 (2012). 하나님 이미지와 부모 자녀 애착 관계에 대한 통합적 고찰. **가족과 상담**, 2(2), 21-30.
- 김수희, 이숙 (2018). 부모돌봄인식, 정서지능, 또래관계가 학령기 아동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5), 660-673. <http://doi.org/10.5392/JKCA.2018.18.05.660>
- 김태두 (2020). 다윗 왕의 역기능 가족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이해와 적용. **복음과 상담**, 28(2), 109-134. <http://doi.org/10.17841/jocag.2020.28.2.109>
- 김영애 (2012). 유아의 애착형성을 통한 신앙교육.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2009). **구약의 조연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 노바울 (2021). 신앙발달과 애착 관계 - 파울러의 신앙발달 이론과 회피성 애착 사례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4, 477-501. <http://doi.org/10.14387/jkspth.2021.74.477>

- 문진형 (2023).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환경의 변화와 자녀 신앙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 교육목회적 대안으로서 가정의 역할과 Family Ministry. **신학과 실천**, 84, 699-724. <http://doi.org/10.14387/jkspth.2023.84.699>
- 박향아, 배구택, 윤지영, 정도영 (2015). 1세-3세 영유아발달과 애착의 관계. **영아교육연구**, 35(4), 127-147. <http://doi.org/10.18023/kjece.2015.35.4.006>
- 성서원 편집부 (1998). **그랜드종합주석**. 서울: 성서원.
- 사미자 (2001). **종교심리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이만홍, 황지연 (2007). **역동심리치료와 영적 탐구**. 서울: 학지사.
- 이병규 (1978). **사무엘 성경강해 시리즈**. 크리스찬비전하우스.
- 이문경 (2014). 유아기 부모애착이 하나님 표상과 하나님애착에 미치는 관계. 계명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박준하(2011). 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189-209.
- 이재현 (2021). **뒤집어 읽는 심리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이종진 (2004). 사울, 다윗의 왕위 계승과 왕국의 특징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향숙 (2013). 기독교인의 성인애착과 하나님애착 관계, 1-20. **기독교학문학회 상담심리 분과 발표논문**.
- 임경수 (2009). **심리학과 신학에서 본 인간 이해**. 서울: 학지사.
- 전성수 (2008). **성경 인물의 부모 양육태도를 통해 본 성경적 자녀교육의 원리**.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미화 (2011). 기독교 청년의 성인애착유형이 자존감과 신앙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원심 (2005). 애착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 한재희 (2015). 부모화 경험을 한 목회자 자녀의 대인관계 특성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1), 191-228.
- 최종두 (2017). 한국교회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지역별 선교단체 설립의 방향과 전략. 충신대학교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 (2015). **기독교상담학 비평과 사례**. 서울: 햇빛트리니티출판부.
- 최영민 (2019).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쉽게 쓴 정신분석이론**. 서울: 학지사.

- 최해림 (2005). 대인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가톨릭신학과 사상*, 54, 7-39.
- 하재성 (2011). The attachment theory and religiousness: Religious studies and pastoral theological issues. *목회와상담*, 16, 239-266.
- 현상규 (2015). 목회상담에서 “내적작동모델”의 위치. *목회와 상담*, 24, 232-267.
- 홍인중 (2001). 목회자 자녀의 독특성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17, 362-406.
- 황혜숙 (2020). 부모-아동 상호작용치료의 효과성과 애착 중심의 기독교 상담적 의의.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lair, M. (1998).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 대상관계 이론과 종교**(이재훈 역, *Human relationship and the experience of God -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95 출판).
- Basiuk, M. (2018). King David's fatherhood - The bright and dark sides. *Biblica et Patristica Thoruniensia*, 11(4), 447-461.
- Faculty of Moody Theological Seminary. (2017). **무디 성경 주석**(김순현, 정옥배 역, *The Moody Bible commentary*).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Garland, E., & Garland, D. (2008). **상처받은 딸들의 하나님**(임금선 역, *Flawed families of the Bible*). 서울: 도마의 길. (원전 2007 출판).
- Holmes, J. (2005). **존 볼비와 애착이론**(이경숙 역,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서울: 학지사. (원전 1993 출판).
- Kirkpatrick, L. A., & Shaver, P. R. (1990) Attachment theory and religion: Childhood attachments, religious beliefs, and convers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315-334. <https://doi.org/10.2307/1386461>
- Kirkpatrick, L. A. (2005). *Attachment, evolution, and the psychology of religion*. NY: Guilford.
- Marrone, M. (2005). **애착이론과 심리치료**(이민희 역, *Attachment and interaction*).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0 출판).
- Meissner, W. W. (1984). *Psychoanalysis and religious experi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iller, R., & Delaney D. (2015). **심리학에서의 유대-기독교 관점**(김용태 역, *Judeo-Christian perspectives on psychology human nature, motivation, and change*). 서울: 학지사. (원전 2005 출판).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mother-infant attachment security: Result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860-879.
- Peterson, E. H. (2020). **사무엘서 강해**(박성혁 역, *First and second Samuel*). 경 기도: 아바서원. (원전 2012 출판).
- Pittert, R. M. (2003).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김성녀 역, *A heart for God*). 서울: IVP. (원전 1996 출판).
- Rizzuto, A. M. (2000). **살아있는 신의 탄생-정신분석학적 연구**(이재훈, , 유영권, 안 석모, 황영훈, 반신환, 정희성 역, *The birth of the living God - A psychoanalytic study*).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79 출판).
- Wallin, D. J. (2017) **애착과 심리치료**.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역, *Attachment in psychotherapy*). 서울: 학지사. (원전 2007 출판).

[Abstract]**Relevance of Internal Working Model and
Attachment to God and Christian Counseling Implications
: From the point of view of David's son Absalom****Shin, Sung Hee* Jeon, Hye Yeon** Jang, Dong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parent-child relationship can affect attachment to Go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David and Absalom. For this purpose,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examine Absalom's attachment experience with his father from both the perspective of attachment theory and its portrayal in the Bible. Based on this examination, Christian counseling proposal was suggested. In the attachment theory, the internal working model refers specifically to the representational system of the self in relation to others. Analyzing the biblical account, it is evident that David was characterized as "a father who turned away from pain and did not respond," "a father who did not discipline," and "a father who did not express love." According to Kirkpatrick's theory of attachment to God(2005), which states that attachment to one's father influences one's attachment to God, Absalom was not able to form a sufficiently secure attachment to God due to his relationship with David. This is evident because Absalom did not seek God in the moment of crisis nor expressed his distress to God. Therefor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cessary Christian counseling intervention methods for Christian parents and children to not have a distorted image of God and to be able to form a stable attachment to God.

Key words: Absalom and David, parent-child relationship, attachment to God, internal working models, Christian counseling

* Torch Trinity Graduation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 Doctoral Student

** Torch Trinity Graduation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 Doctoral Student

*** Torch Trinity Graduation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 Assistant Professor